

## 중원지역 고구려 유물의 특징과 의미\*

양시은\*\*

- 
- I. 머리말
  - II. 중원지역 출토 고구려 유물의 현황과 특징
  - III. 중원지역 출토 유물의 고구려적 요소
  - IV. 유물을 통해 본 중원과 고구려
  - V. 맺음말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원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지금까지 중원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은 그 수량과 종류가 많지 않아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고구려 도성이 소재한 중국 지안(集安)이나 북한의 평양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유물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중원지역에 고구려가 진출하였음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토기를 통해 충주 지역은 5세기 중 후반, 청원지역은 475년 이후에 고구려가 진출하였음을 상정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금동 광배와 금제 귀걸이를 위시한 장신구류를

---

\* 본 논문은 충청북도 주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학술회의 『융합의 공간, 中原: 中原과 고구려』(2022.09.22.)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

근거로 고구려가 중원지역을 한동안 안정적으로 지배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고구려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골산성이 지역 거점성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물론 해당 내용은 남성골산성 출토 유물 뿐만아니라 유적의 규모와 유구의 내용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밖에도 논문에서는 고구려 토기 제작에 舊백제 공인이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중원지역은 일찍부터 삼국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백제, 고구려, 신라로 그 주체가 바뀌면서 기저에 남아있던 여러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되었다. 삼국 통일 이후에는 남한 전역에는 신라 문화가 퍼져나가게 되었지만, 토기, 기와, 성곽, 무덤, 사찰 등에서 고구려를 위시한 삼국문화의 융합 양상이 전방위적으로 확인된다.

주제어 : 고구려, 중원, 역사문화권, 유물, 백제, 신라

## I. 머리말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2022년 1월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고 이를 발굴·복원하여 역사성을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의 8개 역사문화권을 말한다. 법률에서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다. 다른

역사문화권이 하나의 국가 내지는 정치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중원역사문화권은 중원이라는 특정한 공간 내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모두 아우르고 있어 특징적이다.

국토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中原은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國原小京이 자리하고 있었던 충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계림령과 죽령, 그리고 남한강과 북한강을 통해 남북으로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 지역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중원지역을 충주로만 좁혀 볼 필요는 없다. 상기 특별법에서 중원역사문화권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중원문화는 고대 국가가 태동하는 마한 시기부터 서북쪽으로는 미호천유역인 청주와 진천 일대, 동쪽으로는 충주 일원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후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이러한 중원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삼국 문화의 교섭과 융합으로 탄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후 신라는 충주의 中原京을 중심으로 청주에는 西原京, 원주에는 北原京을 설치하는 등 중원지역을 계속 중요시하였다(성정용·양시은, 2021, 204쪽).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고구려 유물의 현황과 그 특징을 간략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원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고구려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중원지역 출토 고구려 유물의 현황과 특징

### 1. 불교 유물

1915년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에서 발견된 建興 5년명 금동석가삼존불광배(높이 12.4cm)는 중원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유일한 불교 유물이다. 중앙에 끼웠던 본존불은 없어지고 좌우 협시보살만 남아있다. 광배의 윗부분은 화염문을 선각하였고, 그 사이에는 세 구의 化佛이 연화대좌 위에 상반신을 드러내고 있다. 광배의 중앙에는 8엽의 연꽃 문양을 동심원으로 감싼 頭光과 거기에서 이어 내린 身光이 약간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다. 광배의 뒷면에는 “건흥 5년 병진에 불제자 청신녀 상부 아엄이 석가문상을 조성 하오니 바라건대 태어나는 생마다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듣게 되고 일체중생이 이 소원을 같이하게 하소서.”<sup>1)</sup>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불상의 제작 시기와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1: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건흥5년명 금동광배」  
(북천박물관 외, 2012)

‘建興’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고구려의 年號로 추정되며, 丙辰年

1) “建興五年歲在丙辰 佛弟子清信女上部兒奄 造釋迦文像□ 願生生世世值佛聞法 一切衆生同此願.”

은 불상의 양식이 대체로 6세기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536년이나 596년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강현숙(2015, 58쪽)은 연호가 확인되는 고구려 불상들을 대상으로 광배의 양식학적 분석을 통해 延嘉 7년명 금동여래입상 - 寧康 7년명 금동 광배 - 癸未명 금동삼존불 - 景 4년명 금동삼존불 - 建興 5년명 금동삼존불 순으로 상대적 선후 관계를 설정한 바 있다. 불신, 대좌, 광배가 함께 주조된 연가 7년명 불상(높이 16.2cm)의 뒷면에는 “연가 7년인 기미년 고려국의 수도 낙양에 있던 동사의 주지 경과 그 제자 승연을 비롯한 사도 40인이 함께 현겁천불을 조성하여 유포하기로 하였는데 제29불인 인현의불로 비구 범영이 공양합니다.”<sup>2)</sup>라는 명문이 남아있다. 두툼한 법의 좌우로 펼쳐진 옷자락과 가름한 얼굴에서 北魏 불상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양식적 특징을 고려하여 연가 7년인 己未年을 539년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연호와 간지를 계산하면 영강 7년은 551년, 경 4년은 571년, 건흥 5년은 596년으로 비정한 것이다.



「그림 2: 금동불입상의 연호명 금동광배」(강현숙, 2015, 그림2)

물론 건흥 5년명 금동광배의 연대를 536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

2) “延嘉七年歲在己未高麗國樂良 東寺主敬弟子僧演師徒□人共 造賢劫千佛流布第廿九因現義 佛比丘法穎所供養”

다. 문명대(2007, 30쪽)는 중국 산둥성 諸城市博物館에 소장된 東魏 시기의 금동삼존불입상과 광배, 3구의 화불, 협시보살, 두광과 신광 등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건흥 5년명 광배의 제작 시기를 596년이 아닌 536년으로 올려 보았다. 성윤길(2013, 8~10쪽) 역시 일본 도쿄의 네즈미술관(根津美術館)에 소장된 보태 2년명 금동광배와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건흥 5년명 광배는 536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普泰’는 北魏 節閔帝의 연호로, 보태 2년은 532년에 해당한다. 두 유물은 외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주형 광배의 화불 3구, 좌·우의 협시상 상단 전체에 표현된 화염문, 장식 없는 두광 및 신광의 구획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건흥 5년명 광배가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었던 충북 충주에서 발견되었고, ‘釋迦文像’과 ‘淸信女’라는 명문과 두광과 신광의 간단한 문양 패턴 역시 중국 출토 광배의 초기 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림 3: 건흥 5년명 금동광배와의 비교 자료」

그런데 중원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불교 유물로는 앞에서 살펴본 건흥 5년명 금동광배 뿐이다.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출토된 연가7년명 금동여래입상이 539년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건흥 5년명 금동광배는 536년보다는 596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경우 해당 광배는 고구려가 중원지역에서 물러난 이후에 유입된 것이 되므로 이번 논의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2017년에 보물로 지정된 청주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이나 조성 시기와 축조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등이 중원지역에서 확인되는 불교 관련 유적이다. 조성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들 불교 유적과 유물이 중원지역에서 확인되는 점은 고구려가 중원지역을 한동안 영역화하고 안정적으로 다스렸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라 할 수 있겠다.

## 2. 장신구

### 1) 귀걸이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의 장신구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귀걸이(耳飾)이다. 고구려 귀걸이는 일반적으로 主環-遊環-中間飾-垂下飾으로 구성된다. 주환은 굵은 고리인 太環과 가는 고리인 細環으로 구분되는데, 굵은고리 귀걸이가 고구려 귀걸이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중간식과 수하식은 종류가 다양하다. 우선 중간식은 空球體와 小環連接立方體, 小環連接球體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구체는 속이 빈 구형이 특징이며, 소환연접입방체는 작은 고리 6개를 연접하여 입방체를 만든 것이고, 소환연접구체는 작은 고리 여러 개를 연접하여 속이 빈 구체를 만든 것이다. 수하식은 錘形과 하트모양의 心葉形이 주를 이룬다. 추형 수하식은 위쪽에 원판형 장식을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엽형 수하식은 1개의 심엽형 장식이 있기도 하지만 크기가 다른 심엽형 장식이 3개가 달린 것도

다수 확인된다.

중원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0여 점의 고구려 귀걸이가 출토되었다. 충주 단월동 고분군 출토품을 제외하면 모두 주환-유환-중간식-수하식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고구려 귀걸이 형태로, 태환식이 주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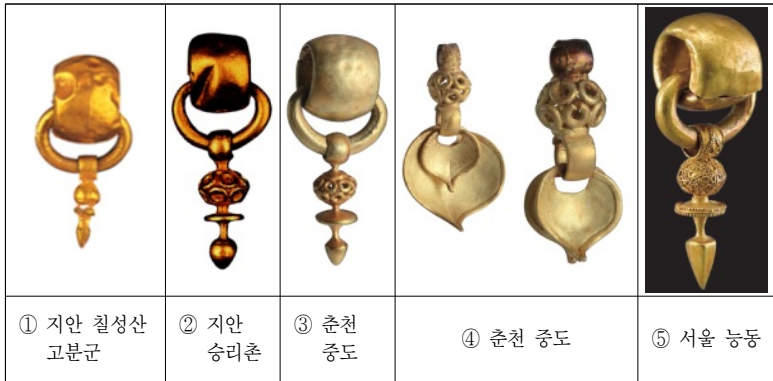
「그림 4: 중원지역 출토 고구려 귀걸이」  
(①②③: 복천박물관, 2012, ④: 한성백제박물관, 2020)

우선 청원 남성골산성 출토품(길이 6.0cm)은 남한지역의 다른 고구려 귀걸이들이 주로 고분에서 출토되는 것과는 달리 생활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얇은 금동판을 말아 속이 빈 태환(주환)과 유환, 타원형의 공구체(중간식), 추 모양의 수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식의 아래 연결금구와 추형 수하식이 땀질 부분이 떨어져 분리되어 있다. 해당 유물은 중국 지안 七星山古墳群 출토품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청원 상봉리 출토품(길이 5.2cm)은 고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습된 태환식 귀걸이이다. 주환-유환-중간식-수하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유환은 청동 심재에 얇은 금판을 씌워 만들었으며, 소환 연결구체의 중간식에 위의 연결고리와 아래로 원판형 장식과 연결된 추형 수하식을 뿔뿔로 접합하여 일체형으로 제작하였다. 해당 유물은 중국 지안시 勝利村 출토품 및 강원도 춘천 중도유적(레고랜드 부지, 예맥문화재연구원 조사) 출토품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진천 회죽리 출토품(길이 6.2cm)은 태환-유환-중간식-수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식은 작은 고리 여러 개를 뿔뿔로 접합하여 만든 소환연접구체인데, 상하 연결금구를 중간식과 뿔뿔로 접합하여 일체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수하식은 크기가 각기 다른 심엽형 장식 3개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유물은 강원도 춘천 중도유적(레고랜드 부지, 강원문화재연구소 조사) 출토품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그림 5: 고구려 귀걸이 각종」

(①②: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의, 2010, ③④⑤:한성백제박물관, 2020)

청원 남성골산성과 상봉리, 그리고 진천 회죽리에서 발견된 이들 귀걸이는 출토 지역의 역사적 정황과 그간의 고고학 조사 및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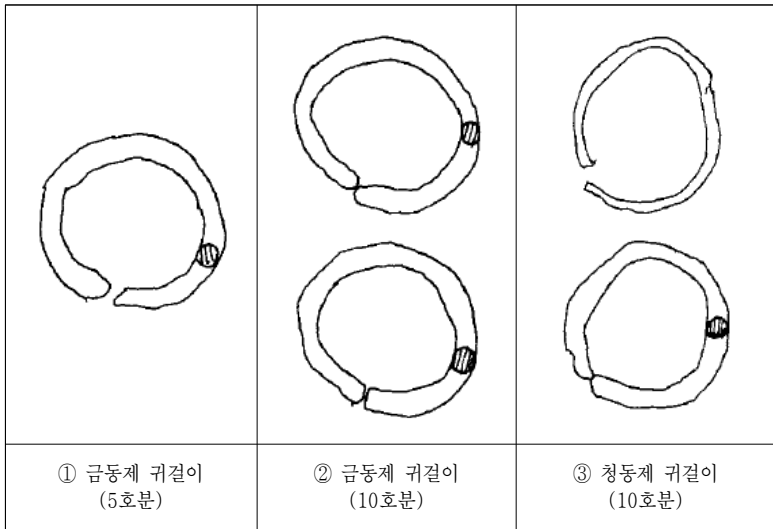
결과로 볼 때, 고구려가 한성을 점령한 475년 이후부터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한강 유역에서 물러나게 되는 551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천 교동 산13번지 유적의 22호 신라 석곽묘에서도 금제 귀걸이가 2점(길이 4.4cm 4.6cm) 출토되었다. 2점 모두 주환 없이 유환-중간식-수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환은 금사를 구부려 둥근 고리로 만들었다. 중간식은 소환연접구체로, 금판을 원통형으로 만들어 붙인 길쭉한 연결금구가 중간식을 통과하도록 만들었으며, 상하단의 연결고리를 비롯한 연결구 전체를 뿔질로 고정하여 일체형으로 만들었다. 수하식은 심엽형 장식 3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 것이 크고 양쪽 것이 작다. 수하식의 상단에는 구멍을 뚫어 연결구 하단의 고리에 연결한 다음 연결고리 양 끝에 있는 구멍에 금사를 연결한 뒤 꼬아 마감하였다(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20, 69~70쪽).

다른 중원지역 출토품과 비교해보더라도 제천 교동 출토 귀걸이는 그 형태나 제작기법에 있어 고구려 금제 귀걸이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연결금구의 길이가 다른 고구려 귀걸이에 비해 다소 길다는 점에서 진천 회죽리 출토품보다는 시기가 늦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교동 유적에서는 6호 석곽묘에서 태환 이식 1점, 47호 석곽묘에서 세환 이식 1점이 각각 출토되었는데, 공반된 유물이 없고 주환만 확인된 관계로 제작 시기와 주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에는 제천 교동 산13번지 유적의 연대를 석곽묘와 석실묘에 부장된 토기류의 형태적 특징을 근거로 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천 일대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고구려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 사례가 없기는 하지만,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제천은 고구려의 奈吐郡에 해당하였다. 6세기대에 만들어진 고구려 귀걸이가 7세기 초 신라 고분에 부장된 연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해당 귀걸이는 제천 지역이 과거 고구려의 영역이었음을 보

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충주 단월동 고분군에서 5호 석실분에서 직경 2cm 가량의 금동제 귀걸이 1점, 10호 석실분에서 직경 2cm 내외의 금동제 귀걸이 2점, 청동제 귀걸이 2점이 각각 출토되었다(건국대학교 박물관, 1994).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10호분에는 연도 부근에 3기의 부곽이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 시기가 다른 토기가 출토되었다는 기술이 있어 추가장이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10호분 출토 귀걸이의 경우 시기를 시대를 달리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우편제 연도를 가진 세장방형 석실에 석회로 마감하였고 5호분에도 부장되고 있는 귀걸이, 반지, 팔찌 등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고구려 시기로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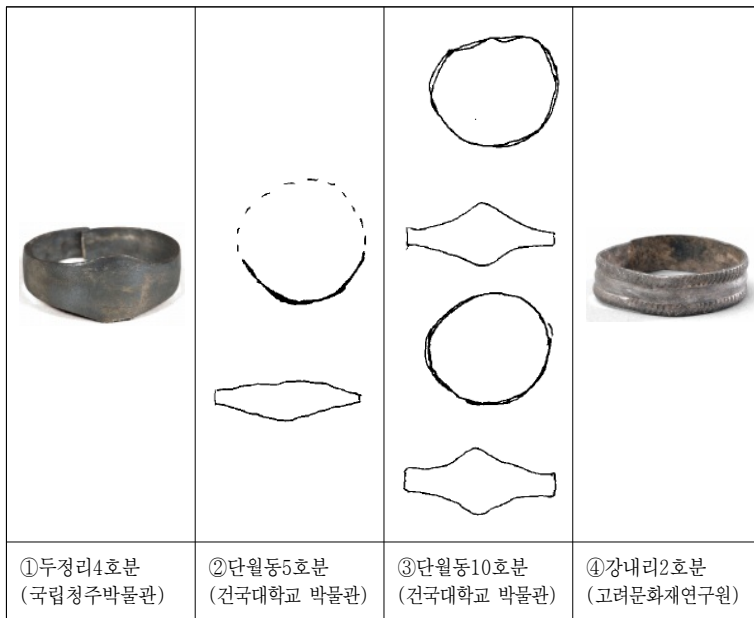
「그림 6: 충주 단월동 고분군 출토 고구려 귀걸이」  
(건국대학교박물관, 1994; 축척 부동)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원지역에서 그 수량은 적지만 넓

은 분포양상을 보이는 금제 귀걸이는 고구려의 상위 계층이 이 지역에 체류하였거나 혹은 고구려의 영역화가 상당히 공고하였음을 보여준다.

## 2) 반지

고구려의 장신구 중에서 반지의 출토 사례는 매우 드문데, 남한에서는 연천 강내리고분과 충주 두정리고분 및 단월동고분에서 은제 반지가 출토되었다.



「그림 7: 고구려 반지 각종」

(①④:복천박물관, 2012, ②③:건국대학교박물관, 1994; 축척 부동)

강내리 2호 석실분에서 출토된 반지는 양쪽 가장자리에 눈테를 새겼으나, 두정리고분과 단월동고분 출토품은 별다른 장식이 없는

대신 윗면을 마름모꼴로 조금 넓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유사한 형태의 반지가 평양 대성산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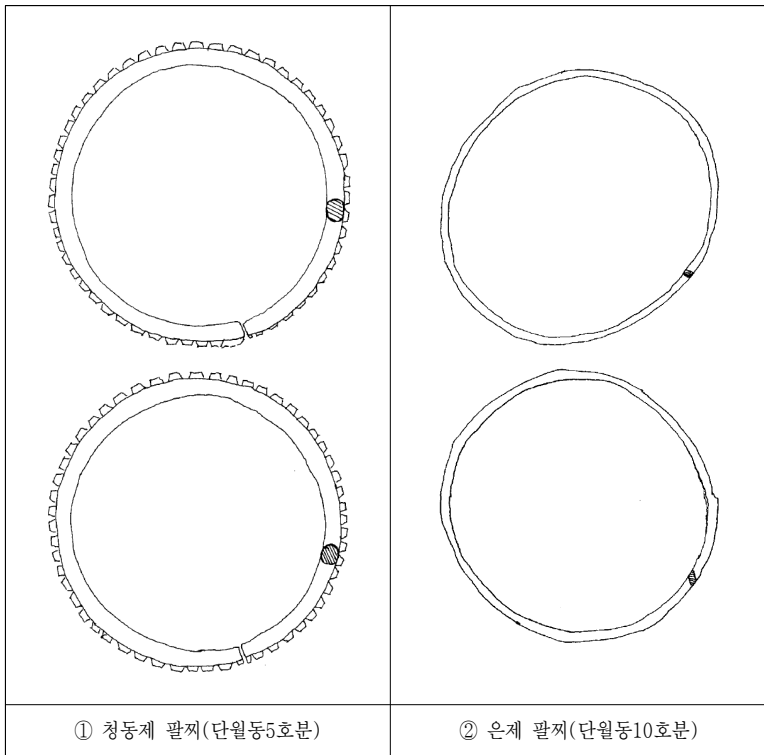
충주 두정리 4호 석실분 출토 은제 반지(직경 4cm)는 석실 중앙에서 동장벽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서 출토되어 피장자의 왼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67쪽). 특별한 장식이나 문양은 없지만 가운데 부분의 윗면을 넓게 만들어 마름모꼴을 하게 하였다.

충주 단월동 5호 석실분에서는 청동제 반지(길이 2cm) 1점이 출토되었다. 부식으로 인해 절반 정도가 없어졌으며, 가운데 중앙부는 두정리고분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능형을 이룬다. 10호 석실분에서는 직경 2cm 내외의 은제 반지 2점이 출토되었으며, 그 형태는 두정리4호분 출토 은제반지와 유사하다.

### 3) 팔찌

팔찌 역시 반지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발견된 수량이 많지 않다. 팔찌는 표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과 돌기가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남한지역에서는 연천 강내리고분군과 충주 단월동고분에서 출토되었다.

단월동 5호 석실분에서는 직경이 각각 7.3cm와 7.5cm인 청동제 팔찌 2점이 출토되었다. 팔찌의 기본 형태는 원형이며, 외면은 톱날 모양의 돌기로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단월동 10호분에서도 직경 6cm인 은제 팔찌 2점이 출토되었다. 원형의 은제 팔찌는 두께 0.2cm인 은판을 잘라서 만들었는데, 별다른 장식은 되어있지 않다. 해당 유물은 연천 강내리 2호분 출토품과 그 형태가 동일하다. 참고로 강내리 8호 석실에서 출토된 은제 팔찌 2점은 표면에 별다른 장식은 없지만 양쪽에 서로 고리를 만들어 다른 쪽에 서로 걸고 이것을 다시 자체 몸에 2~3번 감아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단월동 출토품과 차이를 보인다.



「그림 8: 충주 단월동 고분군 출토 고구려 팔찌」  
(건국대학교박물관, 1994; 축척 부동)



「그림 9: 연천 강내리 고분군 출토 은제 팔찌」(북천박물관, 2012)

### 3. 토기

중원지역의 고구려 토기는 성곽, 고분, 생활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다만 토기에 대해서는 그간 몇 차례의 논고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과 특징이 다루어졌으므로(백종오, 2014 ; 양시은, 2014, 2021 ; 최종택, 2016), 이하에서는 유적과 유물에 대한 개별 설명보다는 중원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를 종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원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기본적으로 심발, 양이심발, 호, 장동호, 양이부호, 직구호, 웅, 직구웅, 동이, 시루, 완, 종지, 이배, 접시, 반, 합, 원통형삼족기, 부형토기, 뚜껑과 같은 일상생활 용기와 연통 및 이형토기 등으로 남한을 비롯한 전체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성이나 생활유적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종이 고루 확인되지만, 충주 두정리나 단월동유적과 같은 고분에서는 호류만 출토되었다.

심발과 부형토기처럼 불을 직접적으로 맞는 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기는 기본적으로는 니질 태토를 이용하였는데, 정선된 점토에 잔석립이 소량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표면 색조는 황갈색, 흑색, 회색 계통인데, 흑(회)색 계통이 다수를 차지한다. 모두 平底로, 회전대 위에서 편평한 바닥을 가장 먼저 만들었을 것이나, 아차산 보루군 출토품과는 달리 바닥 중앙을 가로지르는 돌대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토기는 점토띠 쌓기에 회전대(느린 물레)를 이용한 조정을 통해 성형하였다. 평저는 물레의 회전력을 토기에 전달하는데 적합한 형태로, 기벽의 내외면에는 회전 물손질 흔적이 남아있다. 토기의 표면은 니질태토의 특성상 찰과법에 따른 整面 및 회전대를 이용한 물손질 작업으로 인해 매끄럽거나 윤이 나기도 하는데, 중원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확인된다.

그리고 백제 토기와는 달리 표면에 전면 타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데, 간혹 회전물손질로 인해 타날이 거의 지워진 채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인성(2021, 122쪽)은 아차산보루군 내 흥련봉보루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 중에는 저부에 격자타날이 선명하게 남아있거나 내면에 둥글게 무문 내박자의 흔적이 보이는 것도 있음을 지적하였다(그림 11-①). 고구려 토기 외면에서 타날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정형 과정에서 지워냈기 때문으로, 민족지 사례를 보더라도 토기 제작에 타날구와 내박자는 거의 세트 관계이기 때문에 고구려 토기의 성형 과정에도 당연히 타날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리고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외면에 강한 횡방향의 물손질흔 아래로 지워지다가 남은 타날의 흔적이 포착되는 사례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정형 과정에서 타날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고구려 사회가 요구했던 토기의 형태와 연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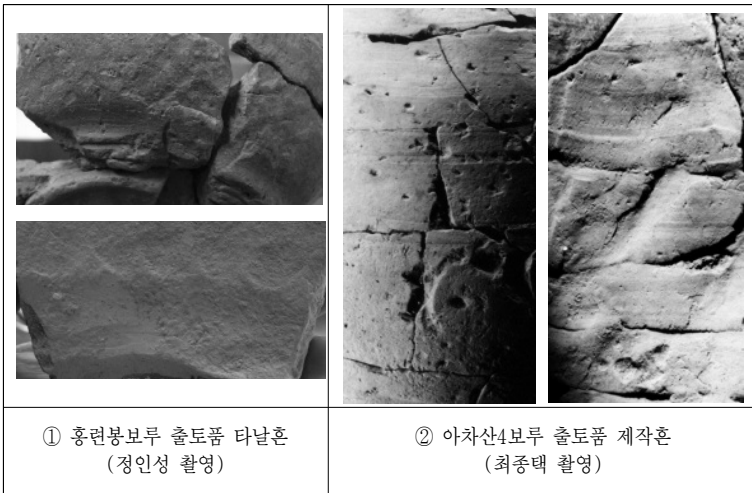


「그림 10: 타날흔이 남아있는 고구려 토기 각종」  
(한성백제박물관, 2020)

필자 역시 과거 중원지역을 포함한 남한의 고구려 유적에서 타날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토기가 소량 출토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련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양시은 2014, 79쪽). 물론 그 경우에도 화성 청계리고분이나 연천 은대리성 출토 고구려 토기의 사례(그림 10)처럼 타날 흔적이 토기 전면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회전대를 이용한 물손질 작업으로 인해 지워져 기벽의 일부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정인성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표면에 타날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완성하고자 하는 토기는 표면에 타날이 없는 본래의 고구려 토기였을 것이다. 이는 고구려 토기 제작에 도구를 활용한 본격적인 타날 성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 사실 토기의 성형 기술과 숙련은 제작자의 장기간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토기 제작의 표준화와 함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sup>3)</sup>

필자는 타날의 흔적이 관찰되는 남한지역 일부 고구려 토기는 고구려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고구려의 도공이 현지에서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舊백제 도공이 일정 정도 개입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물론 정인성의 지적처럼 아차산 보루군 출토품 중에서도 타날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토기가 내외면 모두에서 타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동체가 길고 목이 좁아 토기 안쪽 부분에 별다른 정면을 하지 않은 장동호나 장동옹류의 내면에는 토기 성형 과정의 흔적이 그대로 남겨지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도 점토띠의 접합 흔과 외면 정면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토기 내면을 눌러 생긴 흔적만 확인될 뿐 내박자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그림 11-②). 이는 아차산 보루군 출토품 대부분 제작 과정에 타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3) 이와 관련하여서는 토기 제작 공정에 있어서 성형 기술에서의 변화가 기술혁신이나 생산체계의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주목한 이성주(2014)의 논의를 참고해보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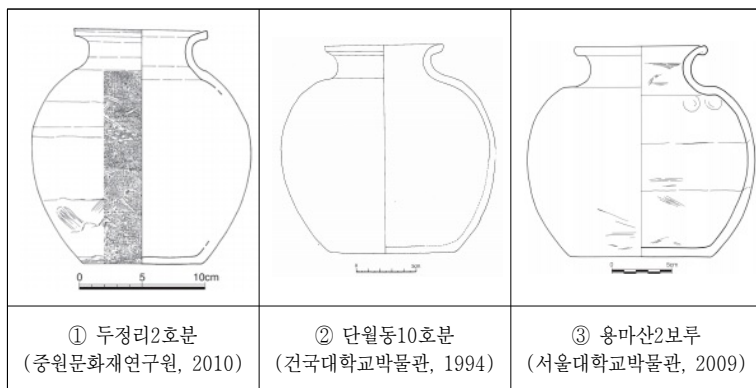
「그림 11: 아차산 보루군 출토 고구려 토기의 내외면」

이와 관련하여 자연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아차산 보루군 출토 고구려 토기는 심발류를 제외하면 장소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현지에서 제작되었다(J.CHOI etc, 2017). 필자는 아차산 보루군 출토 토기는 대체로 6세기 전반기에 시기를 달리하며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양시은, 2003). 아차산 보루군 출토품은 앞서 언급한 은대리성이나 청계리고분, 몽촌토성 등에서 출토된 타날흔이 일부 남아있는 토기보다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고구려가 남진하여 한동안 영역화하였던 만큼 타날 성형이 익숙하였던 현지 도공의 고구려 토기 제작 숙련도가 한층 높아졌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날은 고구려 토기의 일반적인 성형 기법이라기보다는 남진에 따른 현지 적응 과정에서 생겨난 이벤트라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위에서 타날흔에 관하여 장황하게 언급한 것은 중원지역에서 출토되는 여러 토기에서 정형미가 떨어지거나 혹은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에서 약간 벗어난 요소가 보이는 토기가 발견되는 것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지에서 고구려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토기 제작에 서툰 현지 공인들이 참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구려 공인이 전체 제작 과정을 감독했음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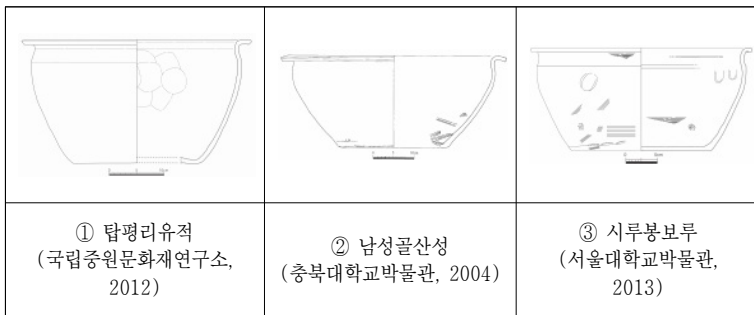
한편, 중원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에서는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소량 발견된다. 문양은 횡침선을 기준으로 파상문이 시문되거나 중호문(반원문)이나 점열문이 단독 혹은 조합(그림 14-②)을 이루어 시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문양은 아차산 보루군이나 호로고루 등과 같이 6세기대 이후로 편년되는 고구려 토기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어 시간성을 반영하는 요소로 이해된다. 그리고 토기의 표면을 단단한 도구로 문질러 문양을 시문한 暗文의 경우에는 고구려 중기 이후에 출현하는 특징적인 요소로, 중원지역에서는 격자문 내지는 횡방향 및 종방향의 암문이 일부 확인된다.



「그림 12: 고구려 호 각종」

호와瓮, 동이와 시루류의 경우 구연은 구단 끝을 둥글게 내지는 각지게 마무리하는 것(A·B형)이 대부분이며, 그 끝을 말아접는 경

우(D형 구연)는 극히 드물다. 구연부의 형태는 시기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존 연구 결과(최종택 1995)에 따르면 D형 구연이 A·B형에 비해 늦게 출현한다. 중원지역에서는 단월동고분군 출토 호와 남성골산성 출토 토기 일부에서만 D형 구연이 확인된다. 게다가 단월동고분 10호분 출토 호는 구형 동체에 약간 각이진 건부가 특징인데, 용마산 2보루에서 출토된 구형호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6세기대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그림 13: 고구려 동이 각종」

그리고 연천 호로그루에서는 가장 늦은 시기의 토층에서 어깨가 발달한 동이와 시루가 발견되고 있어 출현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토기는 D형 구연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양식은 시루봉보루(그림 13-③)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중원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바 없다. 이는 대부분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들린 굽을 회전깎기 하여 제작한 대부분완의 경우 아차산 보루군 중에서도 시루봉보루에서만 확인되어 가장 늦게 출현하는 양식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양시은, 2003), 중원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대부분완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편, 충주 탐평리유적에서 출토된 양이심발(그림 14-①)은 아

차산 보루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종으로 파주 육계토성과 서울 몽촌토성과 같이 좀 더 이른 시기의 유적에서 발견된다.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육계토성보다는 늦고 몽촌토성보다는 약간 이르거나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4: 중원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 각종」

그리고 남성골산성에서는 구연과 경부의 처리가 미숙한 장동호류(그림 14-③)도 발견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 제작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호와 옹류에 대한 형태적 측면에서 아차산보루군 출토품과 진천 대모산성 출토 옹을 비롯한 중원지역 출토품을 비교해보면 동 최대경과 구연부 및 경부의 비율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주 육계토성 출토 사이부호와 같이 시기가 이른 고구려 토기는 동최대경과 비교하였을 때 경부가 상대적으로 넓지만 아차산보루군이나 호로그루처럼 시기가 늦은 토기의 경우에는 경부의 너비가 줄어들면서 경부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은대리성, 흥천 역내리, 원주 건동리 출토 양이부호와 지안 환도산성이나 용인 보정동유적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토기의 기종 구성이나 특정 제작기법에서의 이상과 같은 차이는 제작 시기와 장인집단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의 기

존 연구 결과(2003)에 따르면, 아차산 보루군 출토품은 대체로 6세기 전반 내지는 중반에 제작된 것들로 주로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몽촌토성 출토품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중원지역 고구려 토기 역시 아차산 보루군 보다는 몽촌토성 출토품과 형태적 특징과 제작기법 등이 좀 더 유사하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아차산 보루군 출토품보다 이르거나 현지 제작에 따른 지역적 특징이 가미된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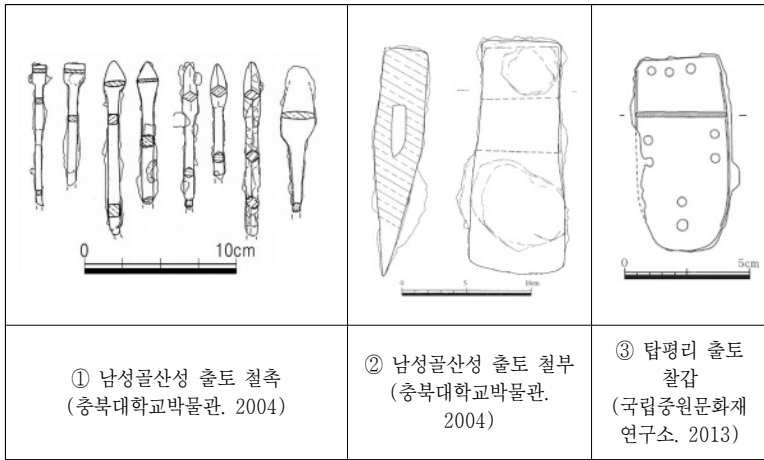
#### 4. 철기

중원지역에서 출토되는 철기는 남한지역을 비롯한 다른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과 그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철기가 출토되는 유적이 많지 않고 그 종류도 한정적인 관계로 이하에서는 기본 현황과 함께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자 한다.

「표 1: 중원지역 출토 고구려 철기 현황」

구분	철촉	철부	활갑	차관	재갈	교구	행엽	살포	삼날	도자	관정	기타	합계
남성골산성	61	2		3	2	2		4	1	1		2	78
탑평리유적	4	1	3				1			1			10
두정동고분											126		126
단월동고분			1							5	87	13	106

우선 남성골산성에서는 무기류(철촉, 황공철부), 차마구류(차관, 재갈, 교구), 농공구류(자귀, 살포, U자형 삼날, 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탑평리유적에서는 고구려 쪽구들 주변에서 무기류(철촉, 철부), 마구류(행엽), 공구류(도자)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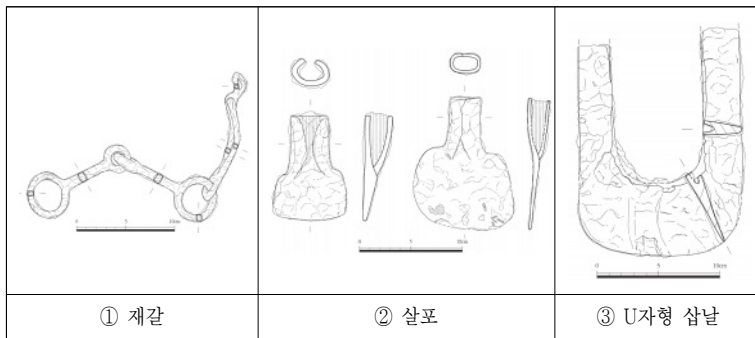
〈그림 15〉 중원지역 출토 고구려 무구류

고구려 철촉(그림 15-①)은 기본적으로 촉두-신부-경부로 구성되는 유경슴베식인데, 촉두의 형태에 따라 세분이 가능하다. 이에 鑿頭形, 廣葉形, 柳葉形, 細長形, 三翼型으로 나누어 보면(강현숙 외, 2020, 324쪽), 중원지역의 고구려 철촉은 거의 대부분 세장형에 해당한다. 박중균(2005)은 남한지역의 세장형 고구려 철촉을 창두형과 矛鋒形으로 구분한 다음 다시 이를 세분하였으며, 김보람(2013)은 전체 고구려 철촉을 15개의 형식으로 분류하였는데, 세장형은 5개의 유형으로 세분한 바 있다. 그런데 보고서나 연구자마다 분류 기준이 같지 않아 철촉의 형식과 분류 명칭이 모두 다른 상황이라 통합된 논의가 쉽지 않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중원지역에서 원형의 찰갑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찰편이 소량 확인된 것이 전부이다. 탐평리유적 출토품의 경우 2mm 두께의 얇은 판으로, 상단에 3개, 중단에 4개, 하단에 2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그림 15-③). 단월동10호분에서도 소찰편이 출토되었다고는 하

나 보존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되어 정확한 내용 확인이 어렵다.

재갈(그림 16-①)은 남성골산성에서 출토되었는데, 2連式으로 꼬지 않은 한 가닥의 철봉으로 되어 있다. 銜 내외의 고리는 원형으로, 내환에 비하여 외환이 더 크다. 고삐이음쇠(引手)는 한쪽만 잔존하고 있으며, 2조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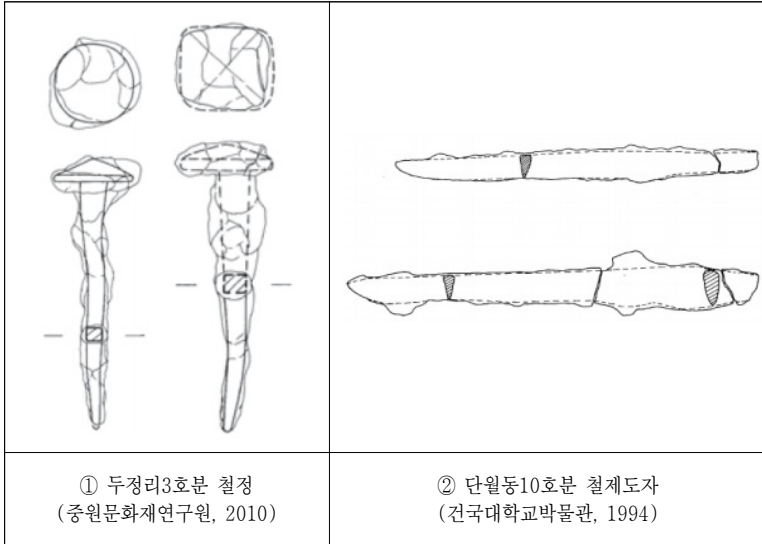


「그림 16: 청원 남성골산성 출토 고구려 재갈과 농공구류」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한편, 충주 두정동과 단월동 고분군에서는 관정이 다수 출토되었다. 연천 강내리고분군과 용인 보정동고분군, 양양 포월리3호분 등에서는 관고리도 확인되었으나, 중원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관고리가 출토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두정동고분군 출토 관정은 원형 또는 말각방형의 頭部에 단면 정사각형의 身部를 이어붙인 것이다(그림 17-①). 원형의 두부는 직경이 대체로 2.5~3.5cm이며, 말각방형의 두부는 너비가 2.5~3.8cm이다. 원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신부의 길이는 10cm 내외이다. 이에 비해 단월동고분군 출토 관정은 원형의 두부만 출토되어 유적간 차이를 보인다. 이 밖에도 단월동 10호분에서는 도자가

5점 출토되었는데, 전체 길이가 6~11cm이다. 신부의 길이는 대략 6cm이고, 자루의 길이는 4cm 가량이다(그림 17-②).



「그림 17: 중원지역 고구려 고분 출토 철기 각종(촉척 부동)」

### Ⅲ. 중원지역 출토 유물의 고구려적 요소

Ⅱ장에서는 중원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의 현황과 기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어 이번 Ⅲ장에서는 신라가 6세기 중반에 중원 지역을 차지한 이후에도 중원문화의 유물상에 고구려의 영향력이 남아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실 지정학적인 위치상 고구려의 문화가 백제나 신라를 비롯한 한반도에 미친 영향은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백제와 고구려와의 정치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음에도 한 성기의 왕릉이었던 석촌동 고분군에 여러 기의 대형 적석총이 축조

된다거나, 웅진기 왕릉의 석실에 갑자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되는 벽면을 가득 채우는 四神으로 장식을 한 것, 그리고 사비 천도 이후 도성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고구려계 토기 등이 대표 사례가 되겠다. 특히 사비기에는 앞서 언급한 사비양식의 백제 토기 외에도 와당이나 금제 귀걸이 등에서도 고구려의 영향이 확인된다. 웅진기까지의 백제 귀걸이는 정교하고 화려한 제작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비기에 이르면 공구체로 된 중간식에 심엽형 혹은 원형의 수하식을 갖춘 유형으로 단순해진다(이한상, 2009, 204~205쪽).

신라 역시 400년 광개토왕이 5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신라의 수도로 내려보낸 사건으로 인해 경주 일원의 신라 무덤에서는 고구려의 금속 용기는 물론이고 각종 귀걸이나 허리띠와 같은 착장용 위세품, 금동장식 마구 등이 출토된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로 인해 찰갑과 마구, 무기류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중장기병이 성립하게 되었고, 경북 영주 일원의 신라 석실분에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고분벽화가 그려지고, 또 통일신라의 및 고려의 석성 축조에 고구려의 축성기술이 영향을 주었다는 점 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중원지역에서 발견되는 삼국문화의 융합 양상은 토기, 기와 성곽, 무덤 등과 같이 전방위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중원지역에서 발전한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권오영, 2021, 16~17쪽). 그렇지만 중원문화의 성립과 발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통 양상을

파악해보려는 시도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물론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이전에는 중원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중부지역에 고구려의 지명이 그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6세기 중반 신라가 충주를 비롯한 중원지역을 차지하였음에도 고구려의 행정지명을 한동안 사용했음은 그만큼 중원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중원역사문화권이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공간 내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아우르는 융합이 가장 큰 특징이라면, 중원문화의 유물상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만큼 중원지역 역시 신라의 문화를 기본으로 기저에 깔린 백제와 고구려의 문화가 점진적으로 통합을 이루었을 것인데, 유물만을 대상으로 이를 살펴보기가 쉽지 않은 일임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럼에도 중원지역에서 출토되는 신라 후기에서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일부 연화문 와당을 고구려의 영향으로 본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조원창·방기영, 2008; 최정혜, 2022). 불교의 영향으로 등장한 연화문 수막새는 삼국시대부터 기와지붕의 처마에 주요하게 사용된 장식기와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고유의 양식적 특징을 지닌다. 물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라 양식의 연화문 수막새가 전국적으로 유행한다. 그렇지만 한때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한강 유역에는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볼륨감 있는 연화문 수막새가 발견되고 있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붉은색 계통의 평기와가 여전히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최정혜(2022)에 따르면, 중원지역의 경우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연화문 와당은 물론이고 고구려 양식이 가미된 연화문 와당도 일부 확인된다고 한다.

우선 청주 복대동유적(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에서는 나말여초로 추정되는 1호 초석 건물지에서 동일한 형태의 연화문 와당 7점이 출토되었다. 이들 와당은 중앙 연자에 삼중 시문이 있고, 화판부에는 8엽의 연판이 배치되었으며, 연판 가운데는 능선이 있고, 연판의 끝부분이 첨형이고, 연판 주위에는 화륜대가 있다. 주연부는 폭이 넓고 무문이다.

또한 음성 양덕리유적(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에서도 3-1지점 1호 건물지에서 동일한 형태의 연화문 와당 15점이 통일신라시대 토기, 중판의 선조문 평기와, 치미, 연목기와 등의 기와류와 함께 출토되었다. 이들 와당은 드림새 중앙에 하나의 연자를 원권으로 장식하고 주위는 8개 연자와 원권을 시문하였으며, 화판부에는 6엽 단판의 연판을 배치하고, 둥근 연판에는 2조의 능선이 있고, 연판의 사이에는 마름모꼴의 간판을 배치하였다. 이 밖에도 화판부와 주연부 사이에는 구상권이, 주연부는 드림새 면보다 높으며 무문이다.



「그림 18: 중원지역 통일신라시대 말기 고구려계 연화문 와당」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7)

북대동유적과 양덕리유적에서 출토된 이들 와당은 기본적인 문양 배치나 연판 내에 능선을 이중으로 장식하는 등 고구려 연화문 와당의 특징이 발견된다. 청주와 음성 지역은 주지하다사피 475년 백제의 한성을 점령한 고구려가 남진하여 6세기 중반 나제연합군에 의해 한강유역에서 물러날 때까지 한동안 장악했던 지역이었다. 특히 음성은 고구려의 仍忽縣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한편,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원주 법천사지, 거둔사지, 충주 정토사지 등의 사찰 출토 연화문 와당 또한 고구려의 영향이 남아있다고 한다(최정혜, 2022). 화판부를 간판으로 구획하고 4엽의 단판을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영향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와당에 비하면 연판이나 주연부의 형태 등에서 고구려보다는 통일신라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림 19: 고려 초기 고구려계 연화문 수막새」  
(최정혜, 2022, 그림7)

지금까지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고려 및 조선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 용기의 직접적

인 원류는 고구려 토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백제와 신라 옹의 저부는 원형인 관계로 바닥에 똑바로 세워놓을 수가 없고 구덩이를 파서 항아리를 놓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바닥이 평저인 고구려 옹은 안치하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동체부에 2개 내지는 4개의 대상파수가 부착되어 있어 이동을 시키기에도 대단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하남 이성산성이나 수원 장안리유적 등과 같이 과거 고구려가 점령하였던 지역의 통일신라시대 유적에서는 고구려 토기와 거의 흡사한 형태의 토기가 발견되기도 한다. 중원지역 역시 그러한 토기가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제천 교동 신라 무덤에서 출토된 고구려 금제 귀걸이 2점 또한 중원문화에 융합된 결과의 산물은 아니지만, 신라가 중원지역을 차지한 이후에도 고구려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이해해볼 수 있겠다.

#### IV. 유물을 통해 본 중원과 고구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원지역의 성곽과 취락, 고분 등에서 고구려의 불교 유물, 장신구, 토기, 철기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들 유물은 고구려의 중원 진출 시기, 영역화 또는 지배 양상, 장인 집단을 비롯한 주민 구성 문제 등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특히 고구려 토기는 중원지역의 진출 시기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물론 고구려 토기의 양식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편년 체계가 그리 정치하지 않은 관계로 중원지역의 진출 양상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역별로 대략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중원지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충주에서는 탑평리 주거지와 두정리와 단월동 고분군에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다. 특히 탑평리유적에서 출토된 양이십발은 고구려 후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종으로, 형태적인 특징으로 볼 때 육계토성 출토품보다는 늦고 몽촌토성 출토품과는 약간 이르거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계토성 출토 고구려 토기는 광개토왕의 남진에 따른 것으로 357년에 조성된 안악3호분에서 출토된 고구려 호나 지안의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의 형태적 특징과 비교해볼 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로 편년되며, 몽촌토성 출토품은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점령한 475년 전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이십발의 존부만으로 충주지역으로의 진출 시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5세기 중후반 경에는 고구려가 정착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리고 탑평리유적에서는 점열문과 중호문이 결합 시문된 호가 발견되었고, 외반하는 구연의 단부의 형태에서 끝을 말아접는 D형 양식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동이의 견부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아차산 보루군 출토 6세기 대 고구려 토기 보다는 제작 시기가 빠르다.

이러한 양상은 충주 두정리고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호분에서는 동체부에 격자타날 후 물손질을 한 호 1점이, 6호분에서는 동체부에 횡침선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파상문을 새긴 호 1점이 출토되었다. 발표자의 기존 연구 결과(2014)에 따르면 동체부에 타날 흔적이 남아있거나 점열문, 파상문, 중호문, 수장문 등의 문양이 새겨진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는 대체로 5세기 중후엽에 해당한다. 최종택(2016, 29쪽) 역시 두정리 2호분 출토 구형호(구형호류 B형)가 평양 고산동 11호분 출토품과 형태적으로 유사하지만, 두정리 출토품이 동체가 약간 길고 최대경이 동체부 중앙에 있어 고산동 11호분 보다 약간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5세기 중엽경으로 편년

한 바 있다.

반면, 단월동고분 출토 고구려 토기는 두정리고분 출토품보다 시기가 늦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단월동 10호분 출토 호는 건부가 두정리 2호분에 비해 발달해 있고 D형 구연이지만, 용마산 2보루 출토 호 보다는 건부의 발달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6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 단월동 5호분 출토 호 역시 기본 형태가 장경호에 가깝고 D형 구연이라는 점에서 10호분 출토 호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늦게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청원 남성골산성 출토 고구려 토기 역시 고구려의 진출 시기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삼국시대 유적의 경우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의 연대 폭이 넓어 유적의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인 점유 시기 등을 파악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남성골산성 출토 토기의 수량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은 한계로 작용한다.

남성골산성에서도 탑평리유적과 마찬가지로 횡침선을 경계로 파상문이 시문된 호 1점과 중호문이 시문된 직구호가 1점 출토되었다. 기형을 특정할 수 없는 파편 중에도 문양이 시문된 것이 있다. 그리고 용, 동이 등에서 기벽에 타날흔이 남아있는 소량이지만 발견되었다. 외반 구연 토기의 경우 구단 끝을 둥글게 혹은 각지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장동호를 포함한 호·옹류에서 그 끝을 말아접는 D형 구연이 4개체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골산성 출토 고구려 토기는 대체적으로 아차산보루군 출토품 보다는 몽촌토성 출토품에 가까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해당 지역으로 진출 시점은 역사적 정황을 함께 고려해볼 때 고구려가 한성을 점령한 475년 보다는 늦은 5세기 후엽으로 추정된다. 다만 유적의 규모에 비해 출토된 고구려 유

물의 수량이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점유 양상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산성 내에서 금제 귀걸이가 출토되었고, 또 인근 상봉리에서 금제 귀걸이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이 일대에도 고구려 고분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성골산성이 지역의 거점성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소량이지만 D형 구연을 가진 토기도 발견되고 있고, 아차산 보루군 출토품과 동일한 형태의 토기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산성의 폐기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남성골산성을 비롯한 중원지역의 고구려 유적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날흔이 남아있는 토기가 발견된다. 고구려 토기는 제작기법상에서 본격적인 타날 성형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데, 유독 남한 지역에서만 타날 성형이 채택되고 있어 흥미롭다. 그렇지만 타날이 이루어지더라도 물손질이나 정면을 통해 지우는 행위가 확인되고 있어 해당 토기 또한 표면에 타날흔이 없는 본래의 고구려 토기를 목표로 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고구려가 남진 과정에서 차지하였던 백제에서는 타날 성형이 일반적이었던 만큼, 타날흔이 남겨진 고구려 토기는 타날 성형에 익숙한 백제 장인이 고구려 장인의 감독 하에 현지에서 고구려 토기의 제작에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남성골산성 등에서 발견되는 일부 형태 처리가 미숙한 고구려 토기 역시 현지 제작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원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역화 및 지배 양상에 대해서는 금동불상과 고분에서 출토된 금제 귀걸이를 위시한 각종 장신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특히 금제 귀걸이는 중국이나 북한지역에서 출토품과 양식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고구려의 상위 계층이 착장하였거나 혹은 고구려가 영역화 한 지역의 유력자에게 사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원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0여점의 귀걸이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 금제 귀걸이는 청원 남성골산성과 상봉리, 진천 회죽리, 제천 교동에서 도합

5점이 발견되었다. 이들과 유사한 금제 귀걸이는 주변의 춘천 중도와 서울 능동에서도 총 4점이 발견되어, 고구려의 영역 범위에 고루 확인된다. 중원지역에서 확인되는 이들 금제 귀걸이는 비록 그 수량은 적지만 고구려의 영역화가 상당히 공고하였음을 보여준다.

중원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불교 유물은 충주에서 발견된 건흥5년명 금동광배 뿐이다. 양식적 속성과 함께 광배 뒤에 새겨진 기미년으로 인해 536년 내지는 596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해당 유물은 경남 의령군에서 발견된 연가7년명 금동불상과 함께 고구려의 불교 문화가 중원지역은 물론이고 그 주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청주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이나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등과 함께 고구려가 중원지역을 영역화하고 안정적으로 다스렸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중원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의 수량과 그 종류가 많지 않아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고구려 도성이 소재한 중국 지안이나 북한의 평양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유물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중원지역에 고구려가 진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원지역에서 출토되는 고구려 유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기를 대상으로 충주와 청원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중원 진출 시기를 살펴보았다. 충주 지역은 5세기 중후반 경에, 청원 지역은 백제의 한성을 점령한 475년 이후에 정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동 광배와 금제 귀걸이를 위시한 장신구

류는 고구려가 중원지역을 한동안 안정적으로 지배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이 밖에도 고구려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골산성의 경우에는 지역 거점성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물론 해당 내용은 유적의 규모와 유구의 내용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중원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 제작에는 舊백제 공인이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중원지역은 일찍부터 삼국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백제, 고구려, 신라로 그 주체가 바뀌면서 기저에 남아있던 여러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남한 전역에는 신라 문화가 퍼져나가게 되었지만, 토기, 기와, 성곽, 무덤, 사찰 등에서 삼국문화의 융합 양상이 전방위적으로 확인된다. 중원문화는 삼국문화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중원문화 형성과 발전에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 요소가 신라 문화와 만나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록 본고는 중원문화 성립 이전의 고구려 유물을 주 논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고구려역사문화권과 중원역사문화권이 나란히 편입되어있는 만큼 앞으로는 중원문화 성립 이후의 고고학적 양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투고일: 2022.11.13, 심사개시일: 2022.11.15, 게재확정일: 2022.12.09.]

【참고문헌】

- 강현숙, 2015, 「高句麗 年號 開始에 대한 考古學的 論意」, 『韓國 古代史研究』 77.
-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중앙문화재단 구원 학술총서 45, 진인진.
- 건국대학교박물관, 1994, 『忠州 丹月洞 古墳群』.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1, 『고대도시유적 중원경 -유물편』.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3, 『忠州 塔坪里遺蹟(中原京 추정지) 발굴조사보고서』.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7, 『중원의 와당』.
- 권오영, 2021, 「한강 유역에서 삼국통일신라 이전 문화의 전개」, 『한국기와학보』 3.
- 김보람, 2013, 「高句麗 鐵鏃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명대, 2007, 「고구려 금동불상과 중국 산동 금동불상 교류」,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동 불상』, 동북아역사재단.
- 박종균, 2005, 「南韓地域 高句麗遺蹟 出土 鐵鏃에 대한 檢討 - 矛鋒形鐵鏃과 鑿頭形鐵鏃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재연구』 1.
- 백중오, 2014, 「中原地域 高句麗 遺蹟 遺物の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50.
- 복천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 2012, 『고구려, 한반도를 품다』.
- 서울대학교박물관, 2009, 『용마산 제2보루 발굴조사보고서』.
- 서울대학교박물관, 2013, 『시루봉보루Ⅱ』.
- 성윤길, 2013,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 연구」, 『미술사학연구』 277.
- 성정용·양시은, 2022,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의미와 활용 방안」, 『문화재』 54-3.
- 양시은, 2003, 「漢江流域 高句麗土器의 製作技法에 대하여」,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시은, 2014,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湖南考古學報』 46.

양시은, 2021, 「중원문화권 고구려 토기의 전개양상과 특징」, 『토기로 본 중원문화의 특징과 정체성』,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양시은, 2022, 「중원지역의 고구려 유물」, 『융합의 공간, 中原: 中原과 고구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여호규, 2020,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99.

여호규, 2021, 「고구려의 ‘남평양(南平壤)’ 건설과 운영」, 『역사문화연구』79.

유나리, 2015, 「高句麗 金製 耳飾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현, 2021,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토기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주, 2014, 『토기제작의 기술혁신과 생산체계』, 학연문화사.

이윤용, 2022, 「고구려 암문토기의 기원과 변천 양상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한상, 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이한상, 2013, 「耳飾으로 본 古代 東北아시아 各國 사이의 交流」, 『百濟文化』 49.

조원창·방기영, 2008, 「堤川長樂寺址出土瓦當(수막새)의 高句麗的要素」, 『중원문화재연구』 2.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2006年度追加 發掘調査-)』.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조성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忠州 豆井里遺蹟』.

충북대학교박물관, 2004,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음성 진양리조트G.C.개발부지내 음성 양덕리유적』.

최영희, 2017, 「中原地域 造瓦技術의 展開」, 『중원의 와당』, 국립문화재연구소.

최정혜, 2022, 「후삼국시대 중원지역의 연화문수막새 검토」, 『한국기와학보』 5.

최종택, 1995, 「漢江流域 高句麗土器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종택, 2016, 「湖西地域 高句麗遺蹟의 調査現況과 歷史的 性格」, 『百濟研究』 63.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 『청주 복대동 금호어울림아파트부지내 청주 복대동유적』.

한성백제박물관, 2020, 『고구려와 한강』.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20, 『제천 교동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제천 교동 산13번지 유적』.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吉林省博物院, 2010, 『集安出土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J.Choi, S.Yang, W.D.Gilstrap, M.D.Glascock, D.Cho, 2017, Compositional Analysis of Ceramics from Goguryeo Fortified Sites in Central Korea, *Archaeometry* 59-6.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Koguryo Artifacts in Jungwon Area**

Yang, Si-Eun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Koguryo artifacts excavated in the Jungwon area. Although that artifacts are limited in terms of quantity and type, Koguryo clearly has territorialized the Jungwon area in that they were found in the same type as artifacts excavated from China's Jian and North Korea's Pyongyang.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d the most excavated pottery among Koguryo artifacts and assumed the timing of Koguryo's entry into Chungju and Cheongwon areas. As a result, it could be estimated that Chungju entered after the mid- to late 5th century and Cheongwon after 475. And it was judged that Koguryo had stably ruled the Jungwon area for a while based on the ornaments including gilt-bronze halo and golden earring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that Namseonggol Fortress, was used as a local administrative center was investigated. Of course,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discussed along with the size of the fortress and the contents of the remains. In addition, it mentioned the possibility that the former Baekje craftsman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Koguryo pottery.

The Jungwon area was a fierce battleground between the three kingdoms from early on, and as the subject changed to Baekje, Koguryo, and Silla, the various cultures that remained at the base naturally merged.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e Silla culture spread

throughout South Korea, but the convergence of the three kingdoms culture including Koguryo was confirmed in all directions in pottery, roof tiles, fortresses, tombs, and temples.

**Keywords:** Koguryo, Jungwon,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Artifacts, Baekje, Shilla